



보도 일시	<전매체> 9. 19.(월) 15:00	배포 일시	9. 19.(월) 08:00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석희 (044-204-7820)
		담당자	사무관 이청수 (044-204-7854) 주무관 정재민 (044-204-7836)

중기부, 민간 주도의 지역(로컬)상권 적극 발굴 · 육성 - 조주현 차관,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 현장 방문 -

□ 민간 주도의 지역(로컬)상권을 찾아 노포, 청년상점 등 방문 및 격려...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사례 청취 및 지역 소상공인 격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8월 25일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 · 육성하기로 했다.

* (주요내용)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지역(로컬)상권 조성 등

이에 대한 일환으로 조주현 차관은 19일 대표적인 민간주도 상권인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인천 중구)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로컬)상권 활성화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개항로 프로젝트는 인천 출신 혁신창업가 이창길 대표가 지난 ’18년부터 창업가 20여명, 30년 이상된 노포 60여곳, 지역혁신가 등과 함께 쇠락한 상권을 지역 콘텐츠와 연계한 민간주도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상권으로 성장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개항로 프로젝트’는 ’22년 지역(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과제로도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지역(로컬)상표(브랜드)로 키우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골목상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주현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이 주도하여 지역을 혁신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 창업가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을 ‘고부가 서비스 기업’과 ‘창조적 신(新) 제조기업’으로 육성하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주현 차관은 간담회를 마친 후 ‘라이트하우스’, ‘정원공예사’, ‘개항로 통닭’ 등 개항로의 주요 상점들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 방문 개요

- (목적)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이후 민간 주도의 행복한 지역(로컬)상권 현장방문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붐 확산
 - *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22. 8. 25)
- (일시) ‘22.9.19(월), 15:00 ~ 16:30 (90분 내외)
- (장소) 인천 개항로 일대 골목상권(인천 중구 개항로 94)
 - * 과거 인천 최고의 상권으로 한국 최초의 극장, 인천 최초의 백화점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쇠락한 구도심으로, 민간 혁신가들이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상권살리기 프로젝트 수행중
- (참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소상공인정책과장, 개항로프로젝트 이창길 대표, 개항로 일대 상인 등 10여명

□ 방문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5 ~ 15:15 (10분)	장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5:15 ~ 15:20 (5분)	인사말	차관
15:20 ~ 16:00 (40분)	간담회 (개항로 프로젝트 본부) - 개항로 프로젝트 사례 발표 청취 - 개항로 노포 및 청년 상인 등과의 토론	이창길 대표 참석자 전원
16:00 ~ 16:30 (30분)	개항로 노포 및 청년상점 방문 및 격려 * 개항백화 → 라이트하우스 → 정원공예사 → 삼화 페인트 → 개항로통닭 → 삼강옥 → 광신제면 → 개항면	* 이창길 대표 안내